

양재·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(포이동) 포함에 관한 청원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제가 소개한 ‘양재·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(포이동)포함에 관한 청원’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청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‘양재 Tech+City 조성 계획’과 향후 ‘양재·우면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’ 추진 시, 개포4동(포이동)을 포함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.
- 서울시는 8. 3. 양재·우면동 일대 300만 m^2 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(ICT)이 결합된 혁신 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며, 향후 이 일대를 ‘지역특화발전특구’로 지정해 R&CD 공간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5,000여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‘양재 Tech+City 조성 계획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-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자치구 행정단위인 서초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함으로써, 인근 양재동과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동일 생활권이며, 특히 벤처기업의 발상지로서 이른바 포이벨리라고 널리 알려진 강남구 개포4동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
- 이에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‘양재·우면 지역특화발전지구’ 지정 시, 동 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개포4동(포이동)을 포함토록 하여, 인근 양재동 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.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청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